

경찰, 불법 카메라 일제 점검 실효성 의문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결과 몰카단속 사례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력 낭비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제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이뤄진다. 광주는 관내 5개 경찰서와 각 구청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다중이용시설 20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일선지자체 공무원들과함

께 합동단속반 227명을 꾸려, 668곳을 점검 중이다.

점검은 카메라 전원을 인식하는 ‘전파탐지형 기기’와 몰카 렌즈구멍을 비춰 레이저광선을 감지하는 ‘렌즈탐지형 기기’가 이용되고 있다.

광주는 총 5대, 전남은 모두 19대가 동원됐지만, 점검 결과 적발된 몰카는 단, 한 건도 없다.

대대적인 경찰력을 동원하고도 결과는

허수고에 그친 셈이다. 경찰의 이번 점검 결과를 두고 점검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몰카 범죄에 흔히 노출되는 모텔이나 유흥업소 화장실 등은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업주 동의 없이 단속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업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몰카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단속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선 현행법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근본적으로 몰카 판매와 유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사이트에서 손 쉽게 몰카를 구매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다차원적인 단속과 예방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불고기도 촬영 가능한 적외선 초소형 카메라가 25만원, 라이더형은 16만원, 차 열쇠형은 22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몰카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는 전파법 인증과 전기용품 판

전관리법 안전확인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해 관련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의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점검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부분의 몰카 촬영이 휴대전화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 맞춰 단속 정책을 마련하고, 몰카 사진이나 영상 게시 홈페이지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법적 장치와 대책으로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몰카 범죄를 막기 힘들다”며 “몰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기자

경찰, 성추행 고교 교사 확대
해당 학교 의혹 대상 교사 소환

‘고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른 교사 4~5명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관련 교사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학생들을 상대로 면담·설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 4~5명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교사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교장 A씨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방학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다른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봉 기자

뒷돈 받은 사이버 기자 항소심서 실형

법원 “사건 청탁 죄질 불량”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뒷돈을 챙긴 주간지 운영자와 사이버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주간지 운영자 A씨(56)와 기자 B씨(62)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돈을 주고 청탁해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으로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으로부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6,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

아동연령·소득인정액 충족해야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

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연합뉴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 촬영 방지 스티커 ‘몰카 마그미’를 자체 제작해 관내 공중화장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몰카 안심스티커로 피해 예방해요”

남부경찰, 공중화장실에 ‘몰카 마그미’ 설치

광주남부경찰서(서장 강철원)는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몰카 마그미’를 자체 제작 관내 공중화장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몰카마그미’로 이름 지은 안심스티커는 100원짜리 크기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됐을 것으로 의심되면 비치된 스티커로 임시 조치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 전문담지장치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남부경찰서는 18일부터 분선근린공원을 시작으로 남부

공중화장실 25개소에 ‘몰카 마그미’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효과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소형카메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화장실 이용객의 불안감을 덜고 자 초록색 스티커를 덧붙인다.

강철원 남부경찰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싸움에 왜 끼어들어” 주먹질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커플과 말리는 행인이 서로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 행.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23)는 지난 17일 새벽 5시 45분께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박 모씨(26)와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싸움을 말리는 것까지 좋았는데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경찰서에까지 오게됐다”며 “선행을 베풀다 황당할 일을 당한 셈”이라고 혀를 끝갈.

/김종찬 기자

● 특수경매 전문
● 입찰부터 매매까지
● 건축 리모델링·개발전문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상가빌딩 (추천)

- 1) 북구 두암동 (3층 상가주택)
토 45평 건 93평 / 4차선도로 접
▶ 감정가 2억8천 → 최저가 2억8천
- 2) 남구 백운동 (3층 빌라)
토 65평 건 145평 / 코너위치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5천
- 3) 화순 도곡면 (숙박시설)
토 617평 건 856평
객실 56개 (월5,000만예상)
▶ 감정가 26억 → 최저가 6억
- 4) 북구 문흥동 (빌라)
토 57평 건 101평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 5) 서구 금호동 (4층 중1층상가)
토 69평 건 137평 / 대단위 아파트 코너위치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1천

근린상가

- 1) 수완지구 (5층중 2층상가)
토 15평 건 32평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 접
▶ 감정가 3억1천 → 최저가 3억1천
- 2) 북구 용봉동 (12층 중 7층 상가)
토 62평 · 건 100평
▶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9백
- 3) 동구 남동 (상가주택)
토 30평 · 건 49평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4) 남구 봉선동 (4층 중 1층 상가)
토 60, 건 102평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2억6천
- 5) 서구 매월동 (7층중 3층상가) 자동차매장
토 4평 건 15평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2백

토지 추천

-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식당·물류·투자최고)
▶ 시세 - 18억 → 최저가 6억6천
- 2) 북구 문흥동 (토지) 378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억6천4백
-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 2천 → 최저가 7천9백
- 4) 나주시 송월동 (171평) 한국전력공사·상업지
▶ 감정가 8억4천5백 → 4억 7천
- 5) 장성군 장성읍 (90,910평)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3백
- 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오성산업단지 인근
▶ 감정가 1억7천8백 → 최저가 8천7백
- 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84평)
▶ 감정가 20억 8천 → 10억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상가)
23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 1)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19평 (보5백 월33만) ▶ 매가 6천5백만
- 2)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접임유)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3)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 (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 4)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5)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신정동)
코너 167(상가1개) ▶ 매가가 3억5천만

A.P.T. 주택·숙박시설·기타

- 1) 상무 버들마을주공 아파트 (25평)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4천7백
- 2)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24평)
▶ 시세 1억6천2백 → 최저가 1억1천3백
- 3)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40평)
▶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7백
- 4) 북구 신용동 한양수자인 (25평)
▶ 감정가 3억2천3백 → 최저가 2억2천6백
- 5) 서구 치평동 대주아파트(23평)
▶ 시세 1억 8천 → 감정가 1억
- 6)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19평)
▶ 시세 1억 → 최저가 7천2백
- 7) 광산구 신창동 부영아파트(34평)
▶ 시세 2억 1천 → 최저가 1억4천
- 8) 광산구 오선동 공장(토 560평 건 590평)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 9천
- 9) 광산구 월전동 공장(토 2000평 건 2500평)
▶ 감정가 68억 → 최저가 47억
- 10)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36평 건 427평
▶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8억9천

010-7384-7800

010-6670-9800

원룸 {상가} 매매 {신축}

월곡시장2분(고려인마을)
신정공원바로앞(코너)

1층 ★ 상가2칸 ★
2층~3층 (원룸10개) 투룸(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만 월수입 600만(용3억)

▶ 매가 9억 5천만

010-6670-9800